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기획조사실

월간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

6월호(제15호)
2016.5.1.~2016.5.31.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1. 英 금융당국, 시장중심 금융시스템(market-based finance)의 기여에 대한 보고서 발표
2. 스마트베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각축전 치열
3. 모델포트폴리오 사용 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
4. 투자의 황금시대 종말
5. 유럽 내 온라인 대출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6. UBS, 로보어드바이저 SigFig와 디지털자문 플랫폼 구축 추진
7. JP모건,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추진
8. 뱅가드, 유럽 사업 확대 움직임에 현지 운용사들 주목

규제 관련 동향

9. 호주, 영국에 이어 핀테크 발전을 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
10. 英 금융당국, 펀드 선취수수료 규제 검토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1 英 금융당국, 시장중심 금융시스템(market-based finance)의 기여에 대한 보고서 발표 (5/26, FCA)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시장중심 금융시스템(market-based finance)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

* 'Market-based Finance: Its Contributions and Emerging Issues'

- 동 보고서는 금융공학의 발전과 자금조달의 글로벌화에 따라 시장중심 금융이 성장해왔으며, 시장중심 금융이 단지 은행을 대신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자금·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

- 특히 적절히 규율되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은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 전통적인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

-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체계의 복잡성과 불안정한 측면은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언급

2 스마트베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각축전 치열 (5/22, FT)

○ 최근 기존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스마트베타*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 중

* 스마트베타 : 지수추종 패시브펀드인 ETF에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미한 운용방식

- 최근 운용규모 740억달러의 Hartford Funds가 운용규모 2.2억달러의 스마트베타 운용사인 Lattice Strategies를 인수하였으며, JP모건 자산운용은 운용규모 30억달러의 스마트베타 ETF 운용사인 Global X의 지분을 일부 취득

* Columbia Thread Needle, Oppenheimer, Legg Mason도 각각 스마트베타 자산운용사인 Emerging Global Advisors, VTL Associates, QS Investors를 인수

- 인수합병 외에도 Fidelity는 SEC에 스마트베타 ETF 상품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Franklin Templeton의 경우 스마트베타 자체출시를 위해 前 BlackRock 임원을 영입하는 등 동 사업 확대를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치열

○ 수년간 펀드업계는 과거 액티브 펀드에서 현재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와 다수의 ETF들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왔으며, 현재의 1세대 패시브 펀드시장은 State Street, Vanguard, BlackRock 등 3사가 주도 중

- 업계에서는 현재의 패시브시장이 기존 시장추종형과 함께 금융공학 기법 활용, 인덱스 응용 등을 통해 패시브 투자임에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스마트베타 시장으로 양분되어 진화*해 갈 것으로 예상

* BlackRock은 현재 2,820억 달러에 불과한 스마트베타 시장이 2025년까지 2.4조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 예상

- 전문가들은 기술과 데이터분석의 발전으로 과거 기관투자자들만이 가능했던 'Factor Investing' 기법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성격이 모호한 스마트베타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

3 모델포트폴리오 사용 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 (5/6, Investment News)

○ 증권사에 소속된 어드바이저들은 고객 자산관리시 회사 차원의 모델포트폴리오를 활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개별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회사 차원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어드바이저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

- 글로벌 자산운용 리서치회사인 Cerulli Associates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회사 차원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어드바이저들의 고객 자산관리 수익률은 연평균 36.7%에 달한 반면, 어드바이저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경우 수익률은 33.5%에 불과

- 이러한 이유는 회사 차원의 모델포트폴리오가 기본적 분석에 강점을 갖고 있고 일관적인 자산운용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개별 어드바이저들은 상담 과정에서 종종 고객의 의견에 영향을 받기 쉽고 포트폴리오 구성시 편입하는 펀드의 가치보다는 운용사의 브랜드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이라 평가

4 투자의 황금시대 종말(저수익률시대의 대처 방안) (5/6, Mckinsey & Company)

○ 맥킨지 컨설팅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향후 20년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지난 30년간의 투자수익률보다 구조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며, 투자자들은 과거의 영광을 잊고 새로운 저수익률의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지난 30년간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각 7.9%로, 이는 지난 100여년간의 평균인 6.5%, 4.9%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이는 80년대초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과 기업 수익성에 기인함*

* ①인플레이션율과 금리 하락 등 투자 우호적 시장환경, ②생산가능인구 증가, 생산성향상,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율 증가, ③신흥시장진출, 생산자동화, 법인세율 하락 등으로 기업이윤 증가

- 그러나 향후 20년간 주식시장의 연평균 기대수익률은 미국 4.0~6.5%, 유럽 4.5~6.0%로 지난 30년간의 평균보다 150~400b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저수익률 시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펀드매니저는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자본집약적 산업보다 바이오, 미디어, IT 등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에 대한 고수익 기업을 발굴하여 수익률을 차별화 시킬 필요

- 또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노후대비를 강화하거나 은퇴를 연기해야하며, 또한 저축률을 높이거나 은퇴이후의 기대 소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조언

5 유럽 내 온라인 대출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5/10, FT)

○ 유럽 자산유동화시장은 올 1분기 최근 5년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유럽 최초로 P2P대출업체인 Funding Circle社의 온라인 대출채권*에 대한 유동화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

* 해당 대출은 Funding Circle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美 자산운용사인 KLS가 대출채권을 소유

** Funding Circle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중 8,780만유로 상당의 senior tranche는 S&P BBB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1개월 리보+220bp를 지급하는 한편, 고위험 tranche는 KLS가 소유하고 전체 유동화증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은 9.6% 수준임

- 금번 유동화 건은 1.3억유로로 규모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유럽은행권 대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대출채권 유동화가 대출시장 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가능성*도 증가

* 독일 국책은행인 KfW는 유럽투자펀드(EIF)가 보증하는 Funding Circle社의 senior tranche 4,400만 유로를 매입한 가운데, '15년 한해동안 EIF는 총 9억2,400만유로의 중소기업 대상 채권 유동화를 보증

- 유럽 중소기업들의 신용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IB들도 해당 대출 활성화를 통한 자산유동화 시장 창출에 관심이 집중

○ 다만, 신용평가회사 Fitch는 중소기업 온라인 대출채권 유동화증권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신종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위기 시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

- 해당 대출채권의 소유자인 KLS가 유동화 과정상 가장 위험한 tranche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대출자인 Funding Cirlce社의 경우 유동화 과정의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 불일치 가능성 역시 존재

◈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6 UBS, 로보어드바이저 SigFig와 디지털자문 플랫폼 구축 추진 (5/16, InvestmentNews)

○ UBS아메리카는 최근 로보어드바이저업체인 SigFig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내년 런칭을 목표로 7,000여명의 자사 어드바이저에게 제공할 디지털 자문 플랫폼(digital-advice platform)을 공동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 UBS는 자산관리분야에서 여전히 '사람(어드바이저)'이 핵심요소이며, 이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UBS의 어드바이저와 SigFig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디지털 플랫폼 설계·구축작업에 참여할 것이라 언급

○ 한편 SigFig는 '11년 B2B 로보어드바이저업체로서 금번 UBS와의 제휴 외에도 Cambridge Savings Bank 등 다수의 금융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가운데, 직접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업체뿐만 아니라 어드바이저용(B2B) 로보어드바이저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

* FutureAdvisor도 지난해 BlackRock에 인수된 이후 LPL, RBC, BBVA Compass 등과 업무제휴

7 JP모건,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추진 (6/2, InvestmentNews)

○ JPMorgan Chase & Co는 향후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옵션을 부여할 것이라 발표

- 동사는 이같은 조치가 향후 제공할 디지털 자산관리상품 패키지 구축의 일환이라 설명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확산에 대응해 우수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평가

- 금번 옵션제공은 퇴직연금계좌 보유고객 등을 타겟으로 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소기업 대출제공을 위해 P2P업체인 On Deck Capital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8 뱅가드, 유럽 사업 확대 움직임에 현지 운용사들 주목 (5/24, FT)

○ 세계 최대의 '패시브 전략' 운용사인 美 뱅가드가 유럽 펀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현지 운용사들과 가격 전쟁에 나서면서 현지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

- 동 사는 최근 유럽시장에서 글로벌 주식형 2종, 이머징 주식 및 혼합형 2종 등 총 4개의 신규 펀드를 런칭한 가운데, 동 펀드의 수수료 수준도 60bp~80bp로 공격적으로 책정

- 이미 유럽내에서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뱅가드 인덱스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슈로더나 M&G 등 유럽 현지 운용사들이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

○ 2009년 유럽에 처음 진출한 뱅가드는 6년간 운용자산이 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금번 펀드 런칭으로 유럽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규제 관련 동향

9 호주, 영국에 이어 핀테크 발전을 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 (5/4, The Trade)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힘

- 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기업들이 기존의 복잡한 금융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완화된 규제체계를 적용해 주는 제도로서, 영국 FCA가 지난해 11월 동 제도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

○ ASIC는 향후 핀테크 육성을 최우선과제로 둘 것이라 언급하며, 디지털화 확산과 아시아 중산층 증가 추세 속에 핀테크가 자국 금융서비스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

⑩ 英 금융당국, 펀드 '선취수수료' 규제 검토 (5/26, FT)

○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자산운용업계의 부당경쟁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논쟁이 많았던 선취수수료에 관한 규제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실제 FCA는 선취수수료가 펀드 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

○ 2013년 이후 펀드의 선취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하그리브 랜스다운 등과 같은 온라인 판매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운용사들이 선취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FTSE 250 그룹의 201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전체 운용사 수익 3억2900만 파운드 가운데 선취수수료는 1400만 파운드로 4% 정도를 차지

※ 월간 해외금융산업동향 문의 : 기획조사실 서영미 과장(ymseo@kofia.or.kr, 2003-9036)